



2천년이 오기 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지난 달에는 여의도에 10만을 헤아리는 농민이 2번이나 모여 한 번은 협동조합 통합에 대한 반대를, 또 한 번은 찬성을 외치는 집회를 가졌다. 이 두 번 행사에 소요된 비용만도 수십억원이라고 하니 그간의 협동조합 통합에 따른 찬성, 반대에 소요된 에너지와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 이러한 극한적인 대결은 소요되는 경비도 문제지만 업계의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남을 것이고 우리 업계를 황폐화 시킬 것이다.

적개심을 가지고 극한적 용어를 사용하며 성명전을 벌이는 단체나 모임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농업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뜻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다.

협동조합 통합 문제는 거의 모든 농민

단체와 마지막에는 시민 사회단체까지 끌어 들여 이제 농업 내부만의 갈등에서 국가 사회적인 갈등으로 키워 놓았다.

이제 5개월 후면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우선 Y2K 문제의 해결 없이는 큰 재앙이 예견된다고 준비가 한창이며, 양돈업계도 새로운 천 년에는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하여 준비가 한창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자조금제도를 확립하고, 질병을 퇴치하는 일 등은 노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업종간 또는 정부와 농민 단체간의 갈등의 해결 없이는 새로운 천 년을 맞을 수 없다.

배타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중상모략을 하다 보면 폭력(언어의 폭력 포함)을 행사하게 되고, 적개심이 커져 명예훼손 등 여러 형

지난 달에는 여의도에 10만을 헤아리는 농민이
2번이나 모여 한 번은 협동조합 통합에 대한 반대를, 또 한 번
은 찬성을 외치는 집회를 가졌다. 이 두 번 행사에 소요된 비용만도 수
십억원이라고 하니 그간의 협동조합 통합에 따른 찬성, 반대에 소요된 애
너지와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 이러한 극한적인 대결은 소
요되는 경비도 문제지만 업계의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져 보
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태의 소송으로 가며, 급기야는 메워질 수
없는 골이 깊어져 영원히 증오와 적대적
대립 관계에 이르게 된다. 21세기를 맞으
면서도 해결 못하는 인류의 최대 숙제도
이러한 문제들이다.

해결되는 듯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남아공의 흑백 문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 아일랜드의 친구교의 대립
문제, 코소보의 민족 갈등 문제, 터키의
크루드족 문제, 우리 나라의 남북 대결 문
제 등은 새로운 천 년에 해결되어야 할
인류 공통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남북의 문제에다 국내적으로는 동서 화합
의 문제, 자연·학연 등의 갈등에 이어,
농업계 내부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갈등은
이러한 맥락과 연관지어 보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한 번 갈등구조가 형성되
면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양돈업계도 이러
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배타적인
편견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군인들이 유고와의 전투
에서 싸우는 동안,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이 총기 난사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
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자제하지 못하는 증오심은 결국 파국을
가져오고 만다.

이번 여의도에서의 두 번의 집회에는
많은 농민들이 두 번 모두 참여하여 한 번
은 반대를, 한 번은 찬성을 외쳐야 하는
희극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
농민들은 적대적이거나 서로 증오심까지
가지 않은 상태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협동조
합법을 다루면서 법률적인 처리와 함께 업
계의 화해도 함께 다루어 주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 업계의 모든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2000년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것이 양식있는 모든 농업인의 바램일 것이
다. **양돈**